

다산포럼

과잉의 시대



송재소  
성균관대 명예교수

우리 사회는 너무나 복잡하다. 사회가 복잡하다는 것은 사회를 구성하는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라. 자동차가 너무나 많고 TV 채널이 너무나 많고 백화점의 물건들이 너무나 많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도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여기에도 소음과 먼지까지 너무나 많다. 이래저래 우리는 모든 것이 넘쳐 나는 과잉의 시대에 살고 있다.

넘쳐 나는 것은 물건들뿐만 아니다. 인간의 지적(知的) 활동도 과잉 상태다. 대형 서점에 쌓인 수많은 책을 보면 인간의 지적 활동이 얼마나 왕성(旺盛)한가를 알 수 있다. 이 책들 중에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을' 책들이 많다. 사람들은 왜 '그저 그런' 책들을 이토록 많이 생산해 내는가? 21세기 대한민국에 한정해서 본다면

대학교수들에게 강요된 연구 업적 때문인 경우도 많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지적 호기심이 인간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지식을 추구하도록 추동하였다는 생각이 든다. 지적 호기심은 식욕이나 성욕처럼 일종의 본능적인 욕구다. 본능적 욕구는 억제하기 어렵다. 인간은 이 본능적 욕구인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책들까지 그렇게 많이 생산해 내는 것이 아닐까?

억제하기 힘든 지적 호기심

지적 호기심은 자연과학 분야에서 가장 두드러지며 기술 문명을 무한정으로 발전시키고 있다. 인간의 노동력을 덜어 주고 생활을 풍요롭게 해 주던 기술이 이제는 '너무' 발달해 버렸다. 과잉의 수준이다. 생명공학은 인간의 수명을 점점 연장해 가고 거리엔 자율 자동차가 굴러다니며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고유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 또한 효과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가공할 살상 무기도 속속 개발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기술의 발달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의 수준에 이르렀다 해야 할 것

이다. 인간이 모두 100세 이상의 수명을 누리고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상상해 보라. 이것은 분명 재앙이다. 그러나 기술은 정지하거나 후퇴하지 않는다. 기술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인 지적 호기심은 제어할 수 없는 본능이기 때문이다. 이 본능에 이끌려 인간은 쓸데없는 책만큼이나 많은 기술을 빠르게 발명하고 있다. 지식의 과잉이 빛낸 기술의 과잉이다. 도대체 알고고를 만들어 굳이 이세돌과 대결시킬 필요가 어디 있는가? 이것은 지적 유희에 불과하다. 식욕이나 색욕과 같은 본능을 무절제하고 과도하게 향유하면 그것이 나쁜 것임을 알고 있지만, 지적 호기심은 아무리 많아도 그것이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쯤 해서 우리는 무한계도를 달리는 기술문명이 인류를 파멸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학문 활동을 통하여 써내려 가는 글들이 모두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살고' '느리게 사느'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 한국고전번역원의 하승헌(河承賢) 선임연구원 이 번역 사이트의 '고전산책'

란에 소개한 한장서(韓章錫, 1832~1894)의 글 '봉고지'(焚稿識)가 가슴에 와 닿는다(2017년 10월 9일자). '봉고지'는 문자 그대로 '원고를 불태운 기록'인데 그는 글을 왜 써야 하며 모를지키 무엇을 써야 할 것인지를 고민한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그가 원고를 불태운 까닭은

나는 예전에 학문하는 방법을 몰라 함부로 글을 쓴 일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더욱 부족함을 느꼈다. 이에 두려워지며 정신이 번쩍 들어, 적어 둔 것들을 가져다가 불에 던지고 필묵을 주머니에 담아 다시는 쓰지 않을 뜻을 보이며 '붓아, 먹아, 이 말을 잘 들어라'고 말했다. 이 글을 읽고 나는 그야말로 정신이 번쩍 들었다. 평생 학문을 함당하고 쓴 글들이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중에 인간의 삶을 위한 절박한 욕구에서 쓴 글이 과연 몇 편이나 될까? 내가 쓴 글이 이 시대의 '넘쳐 나는 서적'에 보탬이 되거나 않았을까? 자신의 글을 과감하게 불태운 한장서의 용기가 한없이 부럽고 그럴 용기를 하지 못하고 지금도 이 글을 쓰고 있는 나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인다.

청춘 특·특

청년, 당신의 노력은 안녕하십니까?



정현석  
꿈틀 공동대표

'꿈, 노력, 아메리칸 드림, 실패, 불안정' 이 다섯 가지 단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사람마다 느끼는 것은 다르겠지만 나에게 떠오르는 것은 '청년'이다. 지역에서 청년 문화를 기획하고 진행하면서 수많은 청년들을 마주하며 느끼는 것은 요즘 우리 청년들의 자존감이 많이 낮다는 것이다. 청년을 일컬어 '꽃봉오리'라고도 한다. 마치 그 모습이 피기 직전의 꽃 같다고 해서 그렇다. 당신은 '청년'이라고 했을 때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인터넷계도 이제는 그 이미지가 부정적인 쪽으로 많이 기울어가고 있는 것 같다. 청년이라고 검색했을 때 연관 검색어에 등장하는 키워드들은 'N포 세대, 청년실신, 청년 정책, 헬조선' 등 고달픈 이야기와 기웃거리기 한 가득이다. 꽃이 피기

까지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2017년 8월 기준 통계청이 아르바이트생, 구직 단념자, 취업 준비생 등을 모두 합해 추산하는 청년층 '제1차 실업률'이 22.5%(114만 3000명)에 달했다. 4명 중 1명이 직업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를 향해 누군가는 노력이 부족하고 낙담하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과연 그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일까? 여전히 많은 청년들이 학업과 취업에 매달려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대학 생활을 하며 직접 지켜보는 친구들도 스톱워치를 하루 14시간씩 짝어가며 열심히 노력한다. '사당오락'이 '삼당사락'이 되었다고, '세븐일레븐 :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공부하면 성공한다.'는 신조어도 생겨났다. 하지만, 그들에게 현실은 여전히 딱딱하다.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이라는 개념이 있다. 쉽게 말해, 개인의 재능이나 열정으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속된 말로 '노오력'을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에도 이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보면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곧 노력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게 부조리한

현실이다. 노력에 비해 성과를 내지 못한 많은 청년들은 지금도 스스로를 탓하며 자존감을 잃고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 모른다. '노력을 해도 소용없다.'라는 식의 힘빠는 이야기다 아니다. 기성세대든 신세대든 그들의 노력은 모두 가치가 있다.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한 사람들의 과정에는 큰 박수를 보낼만한 일이다. 하지만, 과연 '실패하고, 떨어지고, 좌절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 개인의 노력에 저평가받아야만 하는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이야말로 박수와 격려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꿈'(실현하고 싶은 희망이나 이상)이 그야말로 '꿈'(실현될 가능성이 아주 적거나 전혀 없는 헛된 기대나 생각)이 되 어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 꿈을 버리라고 말하며,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 이제는 고등학생부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모습을 술하게 찾아볼 수 있고, 해마다 공시생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많은 실패와 불안정함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당연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더욱 자신의 꿈을 잃지 말라고 말하고 싶다. 이 과정이 노력의 질과 방향에 연결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같은 시간을 살고 있고, 지금도 청년들은 많은 것을 포기하며 자신의 시간을 사용하고 있다. 당신의 노력과 땀방울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그 노력의 이유가 '그냥', '무작정', '불안해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로 인해 무작정 견디고, 실패하고, 아파하기보다는 주변을 명확히 둘러보고, 어디에 어떤 노력을 쏟아야 할 지 그 효율성을 잘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얼마 전, 강연에서 흥미로운 말을 들었다. "석기 시대가 끝난 이유는 돌이 다 떨어져서가 아니라, 누군가가 더 나은 발상을 가져왔기 때문이다." 세상은 점점 더 빠르게 바뀌고 있다. 과거의 가치와 안정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그리고 그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빠르게 흘러가고 있다. 우리는 당장 먹을 점심 메뉴를 하나 고를 때도 "뭘 먹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하곤 한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꿈이나 노력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을지 의문이다. 그래서 지금도 어딘가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며 열정을 불태우고 있는 청년들에게 오늘도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당신의 노력은 안녕하십니까?'

社說

한 푼 아쉬운 판에 백억여 원 날려서야

전남 지역 시·군들이 어렵게 확보한 국비를 날릴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최하위권인 전남 지자체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국비를 타기 위해 흥역을 치른다. 단체장들이 수시로 정부 부처를 찾아 머리를 수그리고, 예산 담당 공무원들은 아예 정부청사에 집을 친다. 예결특별해서 3억 원 주겠다는 예산을 5억 원으로, 7억 원을 10억 원으로 늘리는 예산 전쟁을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다. 그러럼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다 쓰지도 못하고 반납해야 한다면 그동안의 노력이 얼마나 헛되고 허망할 것인가. 전남도에 따르면 22개 시·군은 '2017년 지역발전특별회계 관공지원 개발사업'으로 국비 511억여 원을 확보해 8개 분야 155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 입장에서 보면 관공지 개발을 비롯해 관공지원시설 확충·기반 및 편의시설 등 전남 지역의 전반적인 관공 인프라 구축 예산이며, 지

사제 입장에서는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이용한 성장 촉진용 필수 예산인 셈이다. 하지만 15개 시·군은 32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면서 받아 놓은 예산마저 써 보지 못할 상황이다. 10월 현재까지 올해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511억 7900만 원의 28.1%인 144억 원을 정부로부터 교부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미 확보한 국비 예산마저 반납해야 할 판인 것이다. 광양 이순신대교 해변 관공 테마거리 조성·고흥 온대담방 분청공원 조성·영암 가야금테마공원 조성 등 5개 사업을 지난해 사업 집행률이 저조해 예산을 한 푼도 받지 못했다. 나머지 사업들은 실적 보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 지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해 예산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시·군의 안이한 행정 탓이다. 해당 시·군들은 국비를 받지 못한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적 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해 예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유치원 보건교사 배치 의무화 시급하다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은 늘 불안하다. 이따금씩 터지는 아동 학대나 부실한 급식 때문만은 아니다. 학교 안전사고가 갈수록 늘는 가운데 혹시나 내 아이가 안전하게 잘 지내는지, 요즘 같은 환절기엔 감기에 걸리거나 않았는지 걱정이 된다. 그런데 유치원에 보건교사가 있으면 조금은 안심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보건교사가 배치된 유치원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전국 351개 공립 단설유치원에 배치된 보건 전문 인력(보건교사, 간호사)은 41명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지역은 더욱 심각해서 유아들이 건강·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현재 단설(23곳)·병설(413곳) 및 사립(116곳) 등 도내 552곳의 유치원 가운데 보건교사가 배치된 곳은 전체의 42.39%인 234곳에 그쳤다. 특히 사립유치원에는 단 한 곳만 배치됐으며 단설유치원에는 보건교

사가 한 명도 없었다. 물론 이들 유치원에 보건 담당 교사가 있긴 하지만 이들은 전문 의료 지식이 없는 교사들로서 업무만 배정받은 상태다. 결국 어린이들이 수업 도중 아픈거나 다쳤을 때 신속·적절한 의료 조치를 하지 못해 화(禍)를 키울 수밖에 없으며 질병 예방 등에 허점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유치원 안전사고는 2015년 7722건, 2016년 7619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그렇다면 왜 보건교사가 없는 유치원이 이처럼 많은 것일까, 이는 의무교육 기관이 아닌 데다 초·중·고교와 달리 법률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유아교육법에는 촉탁의사·영양사·간호사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보건교사는 빠져 있다. 보건의료법령의 해당 조항에 '보건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는 방안의 법률 개정을 서둘러 단설 및 사립유치원에도 보건교사 배치를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無等鼓

촛불 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첫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2일부터 시작돼 2주째 진행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는 16개 상임위에서 701개 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 기능은 입법과 정부 감사·비판이다. 또 국회의 국정을 감시하는 대표적 수단으로는 국정감사와 국정조사가 있다. 국정감사는 국정의 전반을, 국정조사는 국정의 특정 사안을 대상으로 한다. 헌법과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국정'의 개념은 '의회의 입법 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사법을 포함하

는 국가작용 전반'을 뜻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앙과 같이 순수한 사적 사항은 제외된다. 현재 국정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매년 정기국회 기간 중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실시하고 있다. 대상 기관은 국가기관, 특별시 광역시·도, 정부투자기관, 한국은행, 농수축협중앙회, 그리고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결정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 기관이다. 예초 제헌헌법부터 제3공화국까지는 헌법상에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를 구분,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했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정감사는 집권당인 민주행정·사법을 포함하

국정감사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인내 (대표 FAX 222-4918)	경제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97	사회부 220-0652	사진부 220-0693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기고

에어포칼립스와 미세 먼지



윤봉근  
전 광주시의회의장  
민주당 미세먼지대책특위 부위원장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공기와 종말의 합성어인 에어포칼립스(Airpocalypse·대기오염으로 인한 대재앙)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지어 중국 베이징에서 근무하는 외국인들이 심각한 대기 오염을 견디지 못하고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태까지 벌어진다고 한다. 2016년 2월 발표된 WHO의 세계 질병 부담 프로젝트(The Goba of Disease Project)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 오염에 따른 전 세계 사망 인구가 연간 550만 명에 이른다. 이 중 중국과 인도가 가장 심각하다. 전체 사망자의 55%가 이 두 나

라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013년 이후 중국에서는 연간 160만명, 인도에서는 연간 130만명이 대기 오염으로 사망했다. 흙먼지, 바닷물에서 생기는 소금, 식물의 꽃가루 등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미세 먼지라면 자동차의 배기가스,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이 인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또 굴뚝 등에서 고체 상태의 미세 먼지로 나오는 경우(1차적 발생)도 있으나 발생원에서는 가스 상태로 나온 물질이 공기 중 다른 물질과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세 먼지가 되는 경우(2차적인 발생)도 있다. 중국에서는 석탄 화력 발전이 초미세 먼지를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고, 인도는 나무나 농작물 잔해를 태우거나 실내 요리, 난방을 위해 불을 피우는 것들이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됐다. 중국 베이징과 인도 뉴델리의 평균 초미세 먼지(PM2.5)농도는 WHO 기준치(25㎍/㎥)의 12배인 300㎍/㎥에 달한다. 환경부에 따르면 2013년에 전국에서 발생한 미세 먼지량은 PM10(지름이 10㎛)보다 작은 미세 먼지가 약 12만 200t,

PM2.5(지름이 2.5㎛보다 작은 초미세 먼지)가 약 7만 7000t으로 추산된다. 최근 각 나라에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와 기존 화력 발전소의 개선, 제조업 연소 저감 등을 통해 대기오염 물질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국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자동차 등 이동 수단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줄이는 노력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2.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률을 2020년까지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노후 경유 차량을 2019년까지 조기 폐쇄해나갈 방침이다. 유럽 또한 2013년부터 EURO6라는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정책을 통해 경유차의 질소산화물과 미세 먼지 배출량을 제한하고 있다. 동시에 영국, 프랑스, 독일 정부는 향후 5년 안에 친환경 자동차 판매량을 총 470만대 수준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보조금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미국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8%로 끌어올려 오염원 배출을 현 수준보다 25% 저감할 계획이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약 11% 수준으로 증가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미세 먼지 감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노후 석탄 발전소 10기를 폐기할 후, 이에 따른 전력 생산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신재생 에너지 발전에 30조를 투자할 계획이다. 대기 오염 및 실내 오염을 개선하기 위한 세계 각국 정부의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지난 2015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195개 국가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각각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기후 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 중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오존(O3), 메탄가스(CH4) 등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주범인 점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공기질과 실내 미세 먼지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그래야만 질병과 건강에 훨씬 쾌적하고 맑은 공기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당장 정부나 지자체의 대책이 실질적인 뿐만이 아니라 개인들은 가정과 학교 교실의 미세 먼지에 큰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강조하고 싶다.